



천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또한 비평적 관심의 번두리에 놓인 작가들에게 천착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육육肉慾 혹은 순연純然 일 터인데 인터뷰 자리에서 저녁 메뉴로 파스타를 주문한 것을 미루어 보아 육육은 아닌 듯하다.

“우리 세대는 1980년대 비평담론 앞에 회의 혹은 오기를 진작하며 글을 쓴 세대입니다. 좋아하는 문학관 혹은 문학형태를 보인 매력적인 작가들이 1990년대 대거 등장했고 그들과의 세대감각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목했던 일련의 작가들이 현재 문학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제게 있어 행운이지요. 혹자는 ‘건자의 텍스트에 예민한 비평가’라고 말을 하는데 비평과 텍스트 간의 절묘한 공합일 뿐입니다. 제가 다룰 만하고 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겨지는 텍스트들과의 공합을 극대화한 것이 이번 평론집입니다.”

그는 책의 서문에서 ‘마르탱’이란 인물의 일화를 빌어 문학비평의 진정성을 드러낸다.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훨씬 더 훌륭하게 해버렸다고 여긴 마르탱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게 되는데, 자신과 같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문예비평가가 되었다는 것이 일화의 맥락이다.

“마르탱 얘기를 서문에 담고 나니 주위에서 비평가가 이렇게 작은 존재냐. 창작 못해 비평한다는 자기고백의 재판 아니냐며 빼 있는 농담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러내고자 했던 본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게 있어 비평이란 텍스트와 내가 같이 살면서 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이기적인 비평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공동체, 집단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겠지만, 나를 떠나서 무언가를 말하는 건 쉬이 공허해지기 마련입니다. 비평도 엄연한 창작이거든요.”

그가 갖는 비평의 진정성은 이 지점에 있다. 집단도 좋고 이념도 좋지만 나를 떠난 집단과 이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다른 이념이 자리 잡으면 그것으로 옮겨가기부터 바쁜데, 나로부터 출발하는 비평은 더디지만 지속적인 것이며, 텍스트에 대한 무한한 애정 역시 그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의 이번 평론집은 10년간 지속해 온 문학적 성찰의 결실이다. 그는 그간 작업한 원고들을 주제와 원고분량이라는 치밀한 잣대를 들이대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책에서 제외된 원고들을 다시 간추려 적당한 시기에 선보일 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책에 담기지 못한 원고들이 서자庶子라는 의미는 아니다. 텍스트를 해체시켜 새로운 방법론을 펼쳐 보일 것인가, 여전 정식으로 내보일 것인가,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저에 대한 탐구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문학에 관한 어떤 입장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그 배경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문학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낸 계기, 1980년대 문창시절 읽었던 텍스트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수정 씨의 평론집 《푸줏간에 걸린 고기》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일방통행만을 갖고 있지 않다. 읽는 이를 텍스트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비평으로 돌아오게 하는, 곳곳에 유턴U-turn 장치를 갖추고 있는 흔치 않은 평론집이다. 1990년대 문학이 고깃덩어리로 내걸린 푸줏간. 이 푸줏간은 어차피 우리 사는 한 칸 공간이 잡다한 날것의 욕망이 내걸린 푸줏간은 아니었는지 곱씹게 한다. 아무려나, 1990년대의 문학을 읽고 새로운 육즙의 맛을 느낀다면 모두 그의 공이다. 피와 더께로 얼룩진 공간을 마다 않고 정형기술자로 함께 덩구는 그의 작업은 또 무엇으로 명명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한편 그의 푸줏간을 더욱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책의 표제작인 〈푸줏간에 걸린 고기〉를 먼저 찾아간다. ‘신인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달린 평론을 통해 김영현의 ‘벌레’의 의미와 구도자와 유희자로 드러나는 박노해와 장정일을 이해하고서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찾아간다. “문학이란 관습화된 육체 속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 어떤 초월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문학의 그 오래된 자기 조절능력에 관한 신뢰뿐이다. 지금은 그것이 바로 우리 문학의 유일한 실존적 특성은 아닐까 명심해 보아야 할 때다. 다시, 출발할 때인 것이다”라는 문장을 읽었다면 푸줏간 앞에 다다랐음이다. 그 앞에 다다랐으니 배수아와 백민석 등 1990년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욕망의 살풍경한 고깃덩어리를 순연한 마음으로 보는 일만 남았다. 그것에 담긴 신성을 만날 때까지! 만일 책을 덮고도 고깃덩어리가 걸린 푸줏간의 신산한 풍경이 쉽게 잊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 마디 읊조려 보는 일도 괜찮을 성싶다. “죽어서 좋은 데 가게 나, 우공牛公.” ㉞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